









세상을 들었다 놓는 대공연, 잠들 줄 모른다 흥난도의 밤

남이 김수옥 풍파도는 지역과 지경을 넘어 수많은 사랑들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지난 9월 9일 풍파도의 5월 1일경기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개막을 올렸다.

5월 1일경기장은 환희와 걱정으로 끓는다

모여주었고 무엇을 일케 했으며 무엇을 새겨주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거윳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날부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가장 첫째가는 화제로 되였으며 《이리랑》 열풍에 이어 또 하나의 폭풍같은 관람열풍을 일으키고있다.

교학생들이 흥동이형제는 자기 학교에는 벌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본 풍류들이 많다고 하면서 제일먼저 못 보았것을 못내 아쉬워 하였다. 어디서나 들려왔다. 《오늘 댁집으로 옵니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몇번이나 보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기대한 관람객들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대한 세계적인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새겨서 격동시키고있다. 가자, 평양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현명함 정도와 당의 충실함 인민대중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존엄높은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섰으며 사회주의강국의 위력을 떨치며 세기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로명강국건설에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국가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감 열풍속에 꽃피는 이야기. 지난 9월 어느날 깊은 밤 한때의 펄스까지 경양-원산관공도로를 손잡고 달려가고있었다. 거기에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관람객들이 밀려들고있었다. 수도 평양에서 하루라도 더 보려고싶은 마음들이 가득이 라고있었다. 강장 70성상 가장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온 공화국의 공민들인 공지와 자부심이 비껴있는것이다.

관감 열풍속에 꽃피는 이야기.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공화국을 길이 받들어갈 불같은 맹세

《더욱 창창할 래일이 보입니다》 5월 1일경기장을 나서는 사람들속에는 남달리 얼굴이 붉게 상기된 한 모인이 있었다. 그는 평천구역 평천 1동에서 살고있는 오진익모인 이었다. 군사부족의 나날이 시시때때로있었다. 참가하여 위훈을 세우고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군복을 입고 현장을 찾아온 그에게 있어서 공연에서 펼쳐지는 대 장면들은 더없이 소중한 인생의 추억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비결수 없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긍지였다. 그의 가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군공시위에 풍파로사

가자 평양으로, 조선을 알자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우리 세대의 사명감을 안고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짓밟힌 희망, 잃어버린 꿈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저마다 새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조국의 미래를 떠안고나가는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이 화제로 중시되고있다. 댁들의 학생들을 위해 의견 신통미음은 물론 작은 섬에도 본교를 일떠세우고 뜻밖의 세간 유망한 아이들을 위해 온 나라가 떨쳐나 학교부터 지어주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전민적 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격교육제에 참여하여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가는 놀라운 현실을 직접 목격한 국민들은 《조선은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문명국을 향해 질주하고있다.》며 찬열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새 교육을 입고 새 교과서와 민들레학습기가 들려있는 책가방을 메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쫓아다니며 자라나고있는 아이들이 온갖 비탄이 장소로 되며버린 교정에서 축적없이 시들어가고있다.》며 찬열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바다 건너 온 악마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관공공주 조선국제려...

